

大巡思想과 社會福祉

朴昇植*

目次

I. 序論	IV. 社會福祉의 意義와 實踐
II. 大巡思想의 理解	1. 社會福祉의 意義
1. 大巡의 意味	2. 社會福祉의 必要性
2. 大巡思想의 宗教性	3. 社會福祉의 實踐
III. 大巡思想의 宗旨	V. 大巡思想과 社會福祉
1. 陰陽合德	1. 大巡思想의 意義
2. 神人調化	2. 大巡思想과 社會福祉
3. 解冤相生	VI. 結論
4. 道通眞境	

I. 序論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기본적 내용인 宗旨와 社會福祉와의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종지는 창도주(創道主)인 강증산(姜甌山)의 진리와 사상을 감오(感悟)한 조정산(趙鼎山)이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면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종통을 계승한 박우당(朴牛堂)이 대순진리회를 창도하면서, 대순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대순사상이라 한 것도 박우당이 대순진리회를 창도하여 강증산과 조정산의 사상과 진리를 포덕(布德)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강증산이 밝힌 사상과 진리를 조정산이 정립하였고, 박우당이 계승한 종교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신종교라 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사상이다. 신종교에

* 행정학 박사

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적인 기성 종교들에 비해서 신종교는 교리체계나 제의, 조직체계 등이 새롭고, 종교활동이 활발하다.¹⁾ 그리하여 신종교의 연구는 기존의 종교이론을 검증할 수 있으며, 새로운 종교 이론을 정립하는데 주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²⁾

특히 대순사상은 우리의 전통적 신앙과 민중의 토대위에서 발생한 종교사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생성되어 전래된 기성종교와는 다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강증산에 의해 창도된 대순사상은 우리의 전통사상과 종교적 유산을 모두 간직하고 있어, 한국의 전통사상이나 종교의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대상이다.³⁾ 대순사상은 한국의 전통 사상과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종교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크며, 종교활동도 가장 활발하여 종교연구에 있어서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사상, 종교, 문화 등 정신영역에 있어서 고유한 전통을 경시하고 서구적인 것에 지나치게 가치 부여를 한 사대성(事大性)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 사상과 종교 등은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서구의 사상과 종교 등을 중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것은 서구화로 인식하여 서구의 사상, 종교 등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 왔다. 서구의 사상과 종교 등에 의한 경제개발과 성장은 환경오염과 인간성의 상실 등을 초래하여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대순사상은 인류가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고 인류가 최상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인간 생활과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순사상과 사회복지와의 관계에 관해서 연

1) 金鍾瑞, 현대 신종교의 이해(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 강돈구, "신종교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제6집(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87), pp. 182-183

3) 盧吉明, "神과 人間의 圓한을 抹消한다", 趙明基의 33인, 韓國思想의 深層研究(서울 : 宇石, 1990), p. 425

구해 보고자 한다.

대순사상의 기본적 내용인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에 대해서는 각각 연구한 바 있다.⁴⁾ 여기서는 개별적인 종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체계화를 모색하고,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순의 의미와 대순사상의 宗教性, 종지의 내용을 살펴 보고, 대순사상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大巡思想의 理解

1. 大巡의 意味

대순(大巡)의 자의(字意)는 크게 돈다(巡)는 의미이다. 대순의 순(巡)은 순행할 순, 돌아 다닐 순이라 한다. 따라서 대순은 크게 돌아 다닌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대순은 크게 돌아 보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내용을 함축하여 매우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대순이란 용어는 창도주인 강증산께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⁵⁾하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순은 창시자인 강증산이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 보았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대순은 강증산이 초월적 능력을 갖고 우주 전체를 살펴 본 데에서 연유된 용어이며, 이로부터 대순사상이 하나의 종교적 신념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강증산이 천하를 대순한 것은 삼계인 天界, 地界, 人間界를 개혁하여 선경을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대순은 삼계를 지배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갖은 강증산이 사멸에 빠진 천하를 진단하고, 삼계를 개혁하여 해원상생의 대도로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대순의 의미에서 대순사상은 형성되고 종교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4) 大巡思想學術院에서 발간한 大巡思想論叢, 제2집-제5집 참조

5) 典經, 권지 제1장 11절, p. 266

그리고 대순사상에서는 “대순이 圓이고 無極이고 太極”이라 하여, 대순을 원, 무극, 태극과 동일하게 이해하여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순의 의미가 대순사상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대순을 원이라 한 것은 우주를 의미한다. 우주를 구성하는 태양과 지구, 달, 흑성 등은 모두 원형이며, 우주 전체도 보면 하나의 커다란 원형이다. 그리하여 대순은 태양계와 우주 전체를 뜻한다. 태양계와 우주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계에서 볼 때 확인할 수 있지, 그 안에서는 원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여 과학과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미지의 신비로운 세계이다. 대순은 우주를 의미하며, 우주에 내재된 무한한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순은 우주의 구성요소들의 순환운동과, 순환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자연현상의 이치와 법칙 등을 의미한다. 우주의 순환운동은 크게 돈다는 대순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지구와 흑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순환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운동을 통해서 밤과 낮이 생기며 계절이 바뀌고, 우주 만물이 성장하고 소멸한다. 우주가 규칙적인 순환운동을 하는데 따라 만물은 생성과 소멸을 하게 된다. 대순은 우주의 순환운동도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우주의 순환운동에 의한 만물의 생성과 성쇠의 변화도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내재한 진리라 할 수 있다.

셋째, 대순은 무극이고 태극이라 한 것은 동양철학에서 강조하는 도와 음양사상을 통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순사상의 우주관도 우주의 변화가 없던 세계를 무극이라 한다. 무극이란 우주의 생명이 음과 양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서,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中, 虛, 無의 상태를 말한다. 태극은 비어있는 무극상태에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음양이 대립하는 상대성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고 성장·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극은 서로 성질과 경향이 다른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경쟁할 뿐만 아니라, 통일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상반과 상호의 존하는 응합의 반복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며, 자연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음양은 相反應合인 分열(태극)과 통일(무극)의 순환을 하는데, 이러한 순환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순이라 할 수 있다.⁶⁾ 즉 대순은 대립과 통합을 영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우주 만물이 생성되며, 만물은 창조된 곳으로 돌아가고 다시 창조되는 순환을 영속적으로 한다. 이러한 음양의 작용을 대순사상에서는 음양합덕이라 한다. 음양합덕은 대순사상의 첫 번째 종지로서 대순사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대순사상의 다른 종지인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은 음양합덕을 기초로 전개된 사상들이다.

대순은 창도주인 강증산이 초월적 능력을 갖고 천하를 대순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박우당이 대순진리회를 창도하면서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강증산이 천하를 대순한 것은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여 지상선경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순은 우주의 순환운동에 의한 자연현상과 법칙, 만물의 창생과 변화의 원리 등을 함축하고 있다.

2. 大巡思想의 宗教性

대순사상은 宗旨에 함축되어 있는데, 종지는 대순사상의 세계관이고 주요한 교리이다. 현대 종교학의 주요 연구영역의 하나가 세계관 분석(worldview analysis)이다. 세계관 분석은 인간의 의식과 사회구조의 심층을 이루고 있는 신념과 상징의 역사,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세계관은 인간들의 신념, 의식, 행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류의 문화와 행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Ninian Smart는 종교의 세계관 분석은 敎理的 次元, 神話的 次元, 倫理的 次元, 祭儀的 次元, 經驗的 次元, 社會的 次元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한다.⁸⁾ 교리적 차원은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교리는 신앙의 기본이며, 그 종교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화적 차원은 모든 종교들은 독특하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6) 拙稿,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77), pp. 258-259

7) Ninian Smart, *Worldviews :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강돈구 역, 현대종교학(서울 : 청년사, 1986), p. 12

8) 上揭書, pp. 15-18

신화는 종교의 신비성과 신앙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 윤리적 차원은 각 종교에서 강조하는 특정의 규칙과 계율을 말한다.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나 규범 등은 물론,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지켜야 할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적 차원, 신화적 차원, 윤리적 차원은 종교의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신념체계는 신앙인이 경험과 실천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되고 파악할 수 있다.

제의적 차원은 각 종교의 독특한 종교의식을 말한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강화하게 된다. 종교의식에서는 두려움,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신의 실체를 직접 체험하는 등 일반인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을 갖게 되는 데, 이를 경험적 차원이라 한다. 사회적 차원이란 모든 종교들은 종교활동과 대외적 확산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며, 이러한 종교조직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조직은 의식을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신앙생활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순사상은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교리적 차원, 신화적 차원, 윤리적 차원은 물론, 제의적 차원, 경험적 차원, 사회적 차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연구하고자 하는 종지는 교리적 차원, 신화적 차원, 윤리적 차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신념체계의 관점에서 대순사상의 종지를 논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순사상은 儒佛仙 思想을 포괄하면서, 새로운 종교사상으로 체계화하였다. 동양에서 발전한 종교를 모두 통합한 대순사상의 특성은 관왕사상(冠王思想)에서 볼 수 있다. 관왕사상은 동양에서 전개된 仙家, 佛家, 儒家를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는 것과 비유하였고, 성인이 되어 인격을 완성하였을 때에 필요한 것이 대순사상이라는 것이다. 仙家は 무극 상태에서 인간의 생명 창조가 시작되는 단계에 필요한 사상이며, 佛家は 인간이 태어나서 고요한 것을 깨뜨리고 태어나 양육되면서 깨닫는데 필요한 사상이고, 儒家는 인간이 예의를 지키는 기본적 도리를 행하기 위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수천지지적멸불지양생(受天地之寂滅佛之養生)
수천지지이소유지욕대(受天地之以詔儒之浴帶)
관왕(冠旺)
도솔허무적멸이소(兜率虛無寂滅以韶)⁹⁾

대순사상은 관왕(冠旺)으로서 성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관왕은 인간이 성인이 되어 成婚을 하여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데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선가의 虛無, 불가의 寂滅, 유가의 以韶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인간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상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창도주인 강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라 하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창도자인 강증산은 삼계의 대권을 가진 절대자로서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강세하였다고 한다. 강증산은 진멸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고 있다. 강증산은 인간으로 세상에 왔지만,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할 수 있는 開闢長이며, 절대자로 신봉하고 있다.

셋째, 仙家, 佛家, 儒家 등에 의해서도 세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인류가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증산이 강세하였고, 대순사상이 창도되었다 한다. 대순사상은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창도되었는데, 인류가 멸망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론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인류의 위기와 지구의 종말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학자와 종교 등에서도 제기하였지만, 대순사상의 인류의 위기론은 독특하다. 대순사상은 인류 역사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분류하고 있다. 선천세계는 현재의 세계로서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사회라는 것이고, 후천세계는 인류와 우주 만물이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상세계를 말한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을 상극원리가 지배하여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여 이기는 길만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인간의 모든 일이 상도에 어긋날 수 밖에 없었던 모순의 시대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인간 사물이 상극에 지배되어

9) 典經, 교운 제1장 66절, p. 189

원한이 쌓여 갖가지 재화가 나타나 세상이 참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재화로 인류가 진멸할 정도로 악화되었는 데에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¹⁰⁾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¹¹⁾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인류의 위기는 상극원리가 지배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한다. 현재 인류의 생존 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환경과피도 상극원리에 의한 것이다. 자연개발은 인간생활과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자연개발은 환경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경제성장은 자연과 자원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으로서 각종 오염물질과 폐수, 각종 쓰레기들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문제는 相衡關係(trade-off)에 있다.¹²⁾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는 인간의 편익과 발전만을 고려한 인간 중심의 개발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자연개발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자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인간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경제성장과 자연개발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류가 파멸될지도 모르는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대순사상을 창도한 강증산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은 매우 정확하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신분과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사회변화,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등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男尊女卑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왔다. 역사적으로 家父長制下에서 남성우위의 관념이 형성되었고, 男兒選好 또는 남성존중의 사상으로 여

10) 典經, 공사 제1장 3절, p. 98

11) 典經, 교법 제1장 1절, p. 221

12) 李正典, “所得分配의 측면에서 본 環境問題”, 環境論叢, 第23卷(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1988), pp. 36-37

자들은 남자의 종속된 존재로 인식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一夫多妻, 三從之道, 七去之惡 등 여성차별이 매우 심하였다.

대순사상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 주고, 인권존중에 의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원시대를 맞아 남녀의 분별을 없애서 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풀어 놓았다 한다. 여성들에게 쌓인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니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¹³⁾

남존여비는 抑陰尊陽에서 비롯된 폐습이기 때문에, 正陰正陽에 의해 남녀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正陰正陽에 의한 여성의 존중은 여성과 남성이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극과 태극 상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갖고 있는 정음정양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음양상태를 본래의 위치로 환원하려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정음정양은 남녀가 대립하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평등, 인간의 조화를 통한 음양합덕의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여 인간이라 하고,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을 사회라 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평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즉 남녀평등은 우주론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며, 인간사회의 현실에서도 바르게 실현되어야 하는 당위인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후천에서는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고, 이로 인해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질 것이라 한 것은 사회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남자의 종속적 존재로서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교육도 차별적으로 받았다. 이러한 남존여비도 여성들의 능력 향상과 노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남자들만 大丈夫라 하는데, 여자들도 大丈夫라 표현하였다. 여자

13) 典經, 공사 제1장 32절, pp. 109-100

들을 남자와 같이 大丈夫라 칭한 것은 남녀평등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장부란 포부가 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자를 뜻한다. 남자들에만 한정하여 부르던 대장 부를 여자들에게도 부른 것은, 남녀평등이 실제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니, 이것으로써 옛 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¹⁴⁾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大丈夫 大丈夫라 써서 불사르셨도다.¹⁵⁾

해원시대를 맞아서 천대를 받던 사람이 우대를 받게 되고, 척박하여 버림 을 받던 땅도 새로운 기운이 돌게 된다고 하였다. 신분제도가 엄격하던 봉 건사회가 붕괴되면서 평등사회가 되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비옥하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땅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 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¹⁶⁾

대순사상에서는 근대사회가 되면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다양한 사 상과 주의가 나타나고 수 많은 조직이 생기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세계화 와 국제화의 변화, 사상과 주의의 다양화, 조직사회 등에 대해 정확하게 예 측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가을에 결실되어 수확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현 상이라 하였다.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 가지 주의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 니 이것은 성숙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으니라. ¹⁷⁾

다섯째, 대순사상은 윤리적 차원도 합리적이고 현실 적합적이다. 대순사 상은 현재의 생활과 미래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바른 윤리관을 제시해 주고

14) 典經, 교법 제1장 68절, p. 233

15) 典經, 교법 제2장 57절, p. 244

16) 典經, 교법 제1장 67절, p. 233

17) 典經, 교법 제3장 38절, p. 257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생활태도는 ①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② 윤리적 규범에 일치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없으며, ③ 개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④ 환경에 대한 올바른 관리능력도 결여되어 있다.¹⁸⁾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들의 생활태도는 바른 윤리관을 갖지 않아 無規範的이고, 무책임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현대 사회가 윤리 부재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것은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 놓았으며, 인간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법(亂法)을 세운 데에서 나타나는 한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자유 의사에 맡겨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한다. 난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였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다는 것이다. 모든 일을 자유 의사에 따라 하도록 하였으나, 마음을 바로 해야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 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¹⁹⁾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바른 윤리관은 대순사상에 의해 정립될 수 있다. 대순사상은 전통적인 윤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에도 적합한 윤리관의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대순사상은 조화론적 우주관으로 인간은 우주에서 창생되어 자연과 다른 사람과 공존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덕의 절대성과 초자연적인 불변의 형이상학적 근원을 인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이 음양의 대립과 조화속에서 태어났고, 음양의 원리에 의해 생성과 소멸을 영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와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윤리관은 대순사상이 추

18) Marvin B. Scott, "The Social Source of Alienation", in Irving L. Horwitz (ed), *The New Soci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p. 239-259

19) 典經, 교법 제3장 24절, pp. 254-255

구하는 인존사상과 상호존중의 상생법칙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성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섯째,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가 선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양의 물질문명이 정신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서양의 물질문명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 천리(天理)를 무시하고 자연을 정복하여 모든 죄악이 커져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서양의 물질문명은 인간의 욕구에 따른 자연정복과 물질만을 숭상하여 각종 죄악이 만연되어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한다.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20)

세계의 모든 인류는 각기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경쟁과 투쟁을 하게 되어 이질적인 정치, 종교,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내고 약육강식의 생존 원리에 따라 투쟁과 화합을 되풀이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은 상호간에 원한을 쌓게 되어 해원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선경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고 반목 투쟁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21)

Ⅲ. 大巡思想의 宗旨

종지의 사전적 의미는 “종문(宗門)의 취지”, 또는 “종문의 교의(教義)”라 한다. 그리고 종지는 근본이 되는 뜻, 중요한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종

20) 典經, 교운 제1장 9절, pp. 155-156

21) 典經, 공사 제3장 5절, pp. 130-131

지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전자는 종교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일반적 의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사용하는 종지는 종교적 의미로서, 대순사상의 핵심이며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종지는 대순사상을 집약하고 함축한 중심 개념이다.

1. 陰陽合德

음양합덕이란 전통적인 음양사상을 재개념화(再概念化)하여 우주 만물의 창생과 변화원리와 역사발전을 설명하고, 인간생활과 사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립한 사상이다. 음양사상은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사물에서 음양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양은 서로 성질과 성향이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즉 대관계(對待關係)에 있다는 것이다.²²⁾ 음과 양은 서로가 상반되는 대립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

음양합덕은 對待關係에 있는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화합시킨다는 의미이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은 각기 고유한 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덕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뜻이다. 음과 양이 각각 가지고 있는 덕은, 음과 양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서로 이질적이다. 음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음과 양이 결합하여야만 보다 큰 덕을 갖게 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음양합덕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도라 한다. 노자가 도에서 음양이 생기고, 음양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음양합덕은 궁극적으로 도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몰아일체(沒我一體)가 된다고 하였다. 도는 만물의 생멸과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합덕은 도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합덕의 특성과 사상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22)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p. 3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세계와 후천세계에서는 음양합덕을 하는데, 각기 다른 원리와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선천세계는 상극법칙에 의해서 음양이 대립하여 성장(生長)하게 된다. 음양과 같이 대립물들의 경쟁과 충돌로 자연은 스스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의 자기운동과 같다. 즉 자연의 변화와 조화는 자연에 내재하는 서로 대립하는 성질과 성향이 경쟁하는 상극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음양합덕은 만물의 생성과 쇠퇴는 상극법칙에 의하지만, 결실이 되고 저장(貯藏)이 되는 후천세계는 상생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완전히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 음양합덕을 이루려면 서로 도와주는 상생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만물이 공존공생하고 공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잘되려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상생법칙에 의해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상생법칙에 의해서 음양합덕이 이루어지려면, 음과 양이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자기와 성질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질과 성향의 가치도 존중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과 성향은 전혀 다른 성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셋째, 음양합덕은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조화사상이다. 만물은 동일한 본체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체 생명은 우주에서 생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우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체 생명은 우주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음양합덕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며, 인간의 존재는 우주적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양합덕은 우주와 인간을 동일시하는 天人合一을 강조한다. 天人合一은 인간세계의 질서를 자연계의 질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규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주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기운이 충만되어 있고, 이러한 음양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도 침투하여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음양 관계에 따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는 필연적인 감응관계(感應關係)가 존재한

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넷째, 음양합덕은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원리이며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체도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신경은 양이라 할 수 있고 부교감신경은 음이라 할 수 있다. 교감신경은 낮에 긴장하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체에는 양전기와 음전기가 있으며, 근육도 신장하는 伸筋과 굴절하는 屈筋이 있다. 따라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기도 한다.

음양의 원리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순환원리는 인간 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음양의 이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다. 음양합덕은 인간과 자연과의 연관성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연관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학이며 사회철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²³⁾

다섯째, 음양합덕은 中庸의 의미가 있다. 중용은 음양합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음양합덕을 실현할 수 있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朱熹는 중용을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아 지나침도 미치지 못함도 없는 평상의 도리(不偏不倚 無過不及 而平常地理)”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程明道는 중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中의 이치는 지극하다. 음만으로는 생성되지 않고 양만으로도 생성되지 않는다. 치우치면 禽獸가 되고 중이면 사람이 된다. 중인즉 치우치지 않음이요. 庸인즉 바뀌지 않음이다. 중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하기에 불충분함으로 中庸이라 했다.²⁴⁾

중용은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전개된 개념이다. 중용은 음과 양이 각기 따로 존재하면 생명을 창조할 수 없고, 결합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과 양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짐승과 같은 행동이고, 中의 태도를 취하면 사람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23) Hans Joachim Storig,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 in zwei Ba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河在昌 譯, 세계철학사 : 상권(서울 : 培材書館, 1992), p. 148

24) 車相轄 譯解, 大學中庸(서울: 新韓出版社, 1982), p. 148

서 말하는 중이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음과 양이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영속성을 뜻하는 庸을 부가하여 중용이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용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완성을 하고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조화가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2. 神人調化

신인조화는 대순사상의 독특한 사상이며, 기존의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념이다. 신인조화는 음양합덕에 의해서 제시된 사상으로서, 음양합덕의 구체적 표현이다. 調化는 調和와 造化가 결합된 용어로서 서로 잘 어울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서,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합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인간과는 다른 초능력을 소유한 존재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으로써, 생명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신의 의지에 의해 우주 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신은 자연과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신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는 성취할 수 없으며, 인간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신의 계시와 도움을 받아 이룬 것으로 믿고 있다.

인간은 신에 비해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신에만 무조건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활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배-복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갖고 신의 뜻을 수용하는 태도가 적합하다고 본다. 즉 인간이 인격을 갖고 주체적으로 신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종교적 차원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생활의 궁극적 목표를 우주와 형이상학적인 일체를 이루는 데에서 얻는 해방감을

경험하는데 두고 있다. 종교의 목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진리와 인간의 참다운 실체를 발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절대원칙(absolute principle)과 일체화하는데 있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자유로우며 절대원칙과 일체화할 수 있는 사상인데, 주요한 의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을 음과 양으로 인식하고,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다는 의미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양으로 신을 음으로 이해하고, 인간과 신이 각각의 덕을 결합해야 한다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실현을 의미한다.²⁵⁾ 신과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전경에서 “신이 음이 되고 사람이 양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神爲陰 人爲陽 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也)”²⁶⁾한 것은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공존하고 화합해야만이 우주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신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신이 의탁할 곳이 없어지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수 없으므로, 신은 인간을 기다리고 인간은 신을 기다리게 된다고 한다. 즉 신과 인간이 상통하고 화합하여야만이 천도(天道)와 지도(地道)가 완성되고, 신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신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있는데 신이 없으면 인도할 곳이 없게 되니, 신과 인간이 화합하여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결합하여야 백가지 공사를 이룰 수 있으며, 신명이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신명을 기다리며, 음양이 상합하고 신과 인간이 상통한 후에야 天道가 이루어지고 地道가 완성되며,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인간의 일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도 이루어진다. 27)

25) 拙稿,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p. 546

26) 典經, 재생 43절, p. 309

27) 神無人後無托而所依 人無神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族人人族神明 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典經, 교운 제2장 42절, p. 207

그리하여 신인조화는 신이 인간 보다 상위의 위치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신에게 복종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평등관계에서 서로 도와 주는 상생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다.

둘째,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형성된 사상이다. 인간이 신과 같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새롭게 변신한다는 관념은,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기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참된 성품을 갖고 옳은 일을 지성으로 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란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과 같아지니라.²⁸⁾

셋째, 신인조화는 인간을 신과 같이, 또는 신 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존사상이다. 인간을 신의 피조물(被造物)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 더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창조하였다는 기독교 신관에서는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의 부속물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신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이며, 오히려 신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지배와 인도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자의지(自意志)를 갖고 신을 인간의 뜻에 따라 지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신인조화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으로부터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넷째, 신인조화가 인간을 존중한다고 해서, 신의 뜻을 경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존중하지만, 인간이 신의 뜻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신은 진리의 표준이며, 인간은 진리에 합치될 수

28) 대순진리회,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p. 75

있는 존재라는 가정에서 성립한 사상이다.²⁹⁾ 대순사상에서는 신의 뜻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신의 뜻인 신도를 따르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이 신의 의지인 신도를 존중할 때 세상은 바르게 인도될 수 있다는 신념체계에서 형성된 사상이다.

다섯째, 신인조화는 완전한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제시해 주고 있다. 신인조화는 천리(天理)와 인사(人事)를 합일시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천리는 하늘의 뜻으로 곧 신의 뜻이고, 인사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한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하늘의 뜻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케 하여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3. 解冤相生

(1) 解冤의 意味

해원은 원한을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원을 이해하려면 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원은 인간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생기는 감정이다. 그리고 원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망하거나 원통해 하는 감정도 있다. 따라서 원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원(願)과, 원망하고 원통해 하는 마음을 갖는 원(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그리고 소망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과 억울함 등의 한(恨)의 의미도 갖고 있다. 그리하여 解冤의 冤은 소망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현실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 그리고 자신에게 억울함과 분함을 준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보복심을 갖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한 감정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에도 존재하게 된다. 원한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있고,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며, 국가간에도 존재하게 된다. 개인간의 원한은 개인 사이에서 억울함을 갖게 하

29)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5

30) 鄭大珍, “解冤相生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p. 7

는 데에서 생기는 것이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원한은 욕구 불만과 불평등, 또는 개인적 피해를 당했을 때에 나타난다. 국가와 국가간의 원한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했거나, 국제 무역 등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생기게 된다. 개인, 사회와 국가, 국가간 등에 원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사회의 모든 재난과 불행은 원한을 품는 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³¹⁾고 하여, 개인의 원한은 개인과 사회적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원은 인류와 우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실현하지 않으면 아니될 과제로 보고 있다.

선천세계는 원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한다. 해원은 원한의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발생한 원한을 해소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해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최선의 해원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미 생긴 원한도 원인을 파악하여야 가장 적절한 해원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이 생기는 원인과 해원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첫째, 원한이 생기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도 생기게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원한이 쌓여서 큰 병에 걸린다고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구충족의 존재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인간이 향상된 생활과 사회적 성취를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갖는 욕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안타까워 하여 원한이 생기게 된다. 모든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사회는 원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천세계의 상극원리(相剋原理)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원한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지나친 욕구에 의해 원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1) 典經, 공사 제3장 29절, p. 144

허욕(虛慾)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자신의 능력과 사회 현실에 적합한 욕구를 가져야 하는데, 지나친 욕망을 갖는 데에서 원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욕망을 가져야 하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족하는 생활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욕구 좌절에 의해 생긴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유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해원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하여 욕구 좌절에서 생긴 원한을 풀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현대사회가 무규범해지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현상이 난무하는 것은, 인간을 해원시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의사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난법(亂法)이라 하는데, 이는 해원을 위한 일차적 방법이다.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 난법이다. 난법으로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혼란하고 무질서하지만, 해원을 하게 한 후에, 진법(眞法)을 통해서 바르게 하겠다고 한다. 난법에 의해서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여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 바른 법을 세워서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현재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쌓인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셋째,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존공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극의 원리에 의해 다른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데에서 생긴다고 한다. 인간사회와 우주 만물은 상극법칙에 의해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며 성장한다고 한다. 생존을 위해 만물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의 과정에는 갈등과 투쟁의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논리가 적용된다.

상극에 의해 생긴 원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을 완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으니라.”³²⁾하였고,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³³⁾하였다. 다른 사람

32) 典經, 교법, 제1장. 34절, p. 127

이 나에게 피해를 주어 억울하거나 원한을 갖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넷째,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을 만드는 척을 짓지 말아야 하고,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면 척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척이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억울하게 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척을 짓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척이 없어야 잘 살 수 있고, 남을 억울하게 하여 원한을 사면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 척을 짓지 않으면 원한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척을 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원한이 생기고 나면,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척을 짓지 않아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최선의 해원방법이라 할 수 있다.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34)

척에 의해 원한이 생겼다고 하면, 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척을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풀어 버림으로써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³⁵⁾ 고 한다.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있으면, 원한을 풀어 버리려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허물이 있거든 다 자신의 마음 속으로 풀라. 만일 다풀지 않고 남겨두면 몸과 운명을 그르치니라³⁶⁾하여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을 풀어 버리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이라 한다.

다섯째, 원한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할 경

33) 典經, 교법 제1장 56절, p. 131

34) 典經, 교법 제2장 44절, p. 242

35) 대순진리회, 前揭書, p. 27

36) 典經, 교법 제2장 16절, pp. 236-237

우에도 생기게 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한은 말을 잘못하는 데에서도 생기기 때문에 언덕(言德)을 잘 가지라고 한다. 남에게 나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 원한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화가 미쳐 양자가 모두 큰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반면에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그가 잘 되고 자신도 큰 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³⁷⁾

언덕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갈지니라.³⁸⁾

여섯째, 대순사상에서의 해원은 인간세계의 원한만을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신명세계의 원한도 풀어 주어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는데, 생전에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은 사후에 원신(冤神)이 된다고 한다. 원한을 갖고 있는 신은 신명계와 인간세계에 대해 적대적이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인간세계와 신명세계는 상호 감응관계(感應關係)에 있기 때문에, 양 세계의 원한을 동시에 풀어 주지 않으면 완전한 해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先靈神)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고, 천상의 싸움이 끝나야 인간 싸움이 결정된다고 한다.³⁹⁾

인간세계와 신명계의 해원은 천지도수를 조정하고, 신도(神道)를 따르게 하는 일이다. 천지도수를 바로 잡는 것을 대순사상에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라 한다. 천지공사는 하늘과 땅의 큰 일을 한다는 의미로 천지공사가 완성되면,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상생이 실현되어 천지가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질 것이라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사회를 포함하여 우주 만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극투쟁을 하여 원한이 쌓이게 된 것은 천지도수가 잘못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 천지도수란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순환하는 법칙을 말한다. 천지도수는 자연계만이 아니라 인간세계에도 적용되는 법칙으로, 자연과 인

37) 典經, 교법 제1장 11절, p. 223

38) 典經, 교법 제2장 50절, p. 243

39) 典經, 교법 제1장 54절, p. 231

간의 진화에 따라 변화된다고 한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순환은 천지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천지도수가 어긋나면 우주의 자연적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 생활에도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천지도수가 어긋나서 상극이 지배하고 있는데, 잘못된 천지도수를 바로 잡는 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 중에서 원한을 없애는 공사를 해원공사라 한다.

2. 相生의 意味

대순사상에서는 선천세계는 상극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한이 쌓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상생의 일반적 의미는 공존과 공생을 위해 상호 존중하며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상생은 나 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상생은 일반적인 상생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대순사상의 상생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순사상의 상생은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도와 주는 이타주의적(利他主義的) 상생이다. 인간 생활은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협력 관계를 갖는 것도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기주의적 행동은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활은 상극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원한을 쌓게 되어 인류가 파멸할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원한이 쌓여서 진멸의 위기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원한을 풀어 주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남이 잘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한다. 즉 상생을 해야 하는데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 주는 일반적 의미의 상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는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대순사상의 상생은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의 완성을 의미한다. 대순사

상에서도 음양오행설과 같이 상극법칙과 상생법칙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 음양오행설에서 상극법칙은 한 쪽이 다른 쪽을 이긴다는 것이고, 상생법칙도 한 쪽이 다른 쪽을 도와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의 상극법칙은 양쪽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으로 보고, 상생법칙은 양쪽이 서로 잘 되도록 도와 준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음양오행설에서 상극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상극관계에 있는 것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전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는 화에서 생하고 화는 수에서 생하며 금은 목에서 생하고 목은 금에서 생하니 그것을 쓰는 법을 안 연후에야 가히 신인이라 할 수 있으리라. 陰이 쇠하고 陽이 생하고, 양이 쇠하고 음이 생긴다. 生衰의 도는 음양에 있으니, 사람이 음양을 바르게 사용한 연후에야 인생이라 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陽이 되고 신이 陰이 되어, 음양이 서로 합한 연후에야 변화의 도가 있으리라. 40)

상극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때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는 음양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음양의 변화에 의해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데, 음양이 서로 합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상극관계를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만이, 즉 음양합덕을 완성할 수 있어야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신과 인간이 상합하는 신인조화가 이루어져야 인간 사회가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대순사상에서의 상생은 인간 사회에서만 필요한 이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생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신명계와 자연을 포괄하여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들에까지 확대된다. 신명계와 인간세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고, 인간과 자연은 동체(同體)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 주는 상생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과 우주 만물이

40)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可用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典經, 재생 43절, p. 309

상생관계가 확립되어야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종식되고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세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상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협력하며 질서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상생은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로 보고 있다. 우주의 만물은 상생이 아니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지가 조화되어야 인간사회와 만물은 존재할 수 있고, 인간사회는 상호 협력적인 상생이 이루어져야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상생의 원리를 경시하고 상극의 원리에 따라 이기적 행동을 하는 데에서, 원한이 쌓이고 인간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연 재해가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상생은 보은(報恩)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보은은 다른 사람이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혜택이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출생하고 성장하며 죽을 때까지 자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과 혜택을 받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보은상생은 자연환경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답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은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보은은 남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남에게 줄 것이 없으면 말이라도 잘 해 주고, 내가 남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이 돌아 온다고 한다.

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한을 완전히 푸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인간 세계를 포함한 우주가 상생관계가 되려면, 상극으로 인한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순사상에 있어서 해원은 기초적인 것이고, 상생은 대순사상의 완성을 위한 방법이다. 해원은 원한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진 정도이지, 도와 주어야겠다는 의식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 주는 적극적 협력관계인 상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 道通眞境

(1) 道通의 意味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을 이루려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주요한 특성이다. 도통의 일반적 의미는 보통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異蹟)과, 자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도통의 의미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신비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이란 일반적인 도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보다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신앙을 도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수도라 한다. 대순사상에서 도, 또는 수도라 하는 데에서 도통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를 ‘우주 대원(宇宙 大元)의 진리’, ‘영원한 진리’,⁴¹⁾ ‘우주 만상의 시원(始原)이며 생성변화의 법칙’⁴²⁾ 등이라 한다. 도는 앞에서 살펴 본 대순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우주의 영원한 진리이며,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을 말한다. 우주 만물의 생성은 도에서 시작되고, 도에 의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통은 이러한 도에 통한다는 것이다. 도통은 관련있는 요소들이 상통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도통은 대순사상의 도인 天道, 地道, 人道, 神道⁴³⁾의 주체인 天地人이 막힘이 없이 통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도통에 대해서 대순사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 아즉도(道卽我 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豁然) 관통(貫通)하면 삼계(三界)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曲盡理解)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인 것이다”⁴⁴⁾라는 것이다.

41) 대순진리회, 前揭書, pp. 23-24

42) 上揭書, p. 44

43)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의 의미는 拙稿, “道通眞境의 宗教的 의미”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참조

44)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p. 9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진리를 통찰하고 깊이 깨닫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실하고 성실한 수도를 통해서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곧 도라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正覺) 한다. 도통은 道가 나 자신이며, 내가 바로 道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은 도란 인간의 심성에 내재한 것이며, 인간이 실행해야할 궁극적 가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는 인간이 본성을 바르게 하며 스스로 도와 합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가 인간이라 한 것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는 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道之覺)이라 한다. 도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환하게 통할 수 있으며, 천지인(天地人) 三界의 구성과 변화의 이치를 완전히 알게 되고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통은 인간이 상통천문(上通天文)과 하달지리(下達地理)하고, 중찰인의(中察人義)⁴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上通天文과 下達地理는 天地自然이 음양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하는 이치를 완전히 깨닫는 것이고, 中察人義는 天地의 중간적 존재인 인간이 그 존재 의의를 철저히 인지하고, 인간의 도리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도통은 인간이 사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아서 어떠한 것과도 통할 수 있으며, 인격적으로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도통은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도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도통의 의미와 사상적 의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도통은 인간이 우주의 구성,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나 이치에 통달한 것을 의미한다. 도통은 天地之道인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법칙을 완전히 깨닫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道인 天道, 地道, 人道, 그리고 神道 등에 완전히 통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無不通知),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無所不能)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도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45) 典經, 교법 제3장 31절, p. 256.

수도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의 생성원리인 음양합덕을 완전히 깨달아야 하고, 신과 인간이 상합할 수 있는 신인조화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신명계와 인간사회에 쌓인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는 해원상생을 실천해야 하고, 도통진경이 실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대순사상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한 수도를 해야만 가능하다.

둘째, 도통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완전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도통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人道를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人道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도통한 자는 儒家나 道家에서 말하는 聖人の 경지에 이른 것이며, 佛家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人道를 완성하여 도통한 사람은 眞實無妄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한다는 것이다. 眞實無妄한 생활을 하는 것은 仁과 聖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공자는 “어찌 仁만 행하는가, 반드시 聖에 이르러야 한다”⁴⁶⁾라 하여 仁보다는 聖을 강조하고 있다. 聖은 仁을 완전히 실현한 상태로서, 이러한 상태를 실현한 사람을 聖人이라 한다. 그리고 孟子는 사람의 도를 이해하고 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맹자는 “도가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善人이고, 도를 지닌 자는 信人이고, 도를 충실하게 갖춘 자는 美人이고, 도가 내면적으로 충실하고 밖으로 광휘가 드러나는 자는 大人이고, 大人으로서 질적 변화를 가져 온 자는 聖人이고, 聖人으로서 그 경지를 알 수 없는 자는 神人이라 한다”⁴⁷⁾ 도통한 사람은 성인의 경지 보다 한 단계 높은 神人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도통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말하는 도통은 도를 수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개발하여 초월적 존재가 된 상태라 할 수 있다.

46) 論語, 雍也, 何事於人 必也聖乎

47) 孟子, 盡心下, “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充實之謂美 充實而有光輝之謂大 大而化之之謂聖 聖而不可知之之謂神.

도통은 우주의 모든 진리를 통달하고,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인격을 갖춘 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대순사상에서는 지상신선, 또는 신선이라고 한다. 현실 세계의 인간은 육신의 한계와 한 없는 욕구로 인하여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신과 같은 존재인 신선이 되는 것이 도통이다. 신선이 되는 것은 영통(靈通)으로서 인간이 신명세계와도 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도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상적 인간상인 신선관념(神仙觀念)과 같은 것이다. 신선이란 인간이 초월적인神通력(神通力)을 가지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인(神人)을 말한다.⁴⁸⁾ 신선은 선인(仙人)이라고도 하는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로서 자연주의적 초월적 인간관에서 유추된 존재이다. 즉 신선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면서도 자연을 초월한 생활을 하는 인간이며,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2) 眞境의 意味

진경은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참다운 경지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현재 우주 만물은 불완전한 환경으로 갖가지 災禍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공정한 생존법칙으로 많은 원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과 불공정한 법칙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지상 낙원과 같은 이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진경이다.

인간과 동식물은 하늘과 땅, 인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우주를 구성하는 하늘과 땅은 음과 양으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한다. 하늘은 태양열, 비 등을 내려 인간과 동식물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해 준다. 땅은 하늘에서 내려 주는 것을 받아서 인간과 동식물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만물을 이끌어 가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이용하고 있다.

천지인 삼계는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도에 의해서 하늘은 덕을 갖고 있고, 땅은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의 덕과 땅의 변화 능력을 활용하여 기르고 돌보는 활동을 한다. 天地人の 德化育을 통

48)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p. 146

해서 우주 만물은 생존하고 자연은 변화하게 된다.

天地人 三界은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야 인간과 만물이 생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천세계의三界은 불완전하여 갖가지 災禍가 나타나고, 만물은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상에 생존하는 동식물들은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원리에 의해 도태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였다. 식물은 뿌리를 내려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부조화한 자연 상태로 인하여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동물들도 자연 환경의 악화와 약육강식으로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간도 과학 기술의 고도화로 자신의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켰지만, 불완전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인류가 발전시킨 현대 문명은 불완전하여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음양합덕이 상극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상극원리는 음양이 각기 다른 존재를 부정하고 서로 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진경은 상극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우주 만물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상태를 실현한 것이다.

이러한 진경은 음양합덕이 상생원리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이 서로가 잘 되도록 도와 주어야 진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음양합덕이 상생원리를 따르는 것은, 도에 의해서 천지인이 서로 통하는 도지통명(道之通明)하는 것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상생원리를 따를 때, 모든 개체들이 온전하게 존재하고 각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도통진경이란 인간이 초월적 능력을 갖게 되며, 환경이 완전히 조화를 이룬 이상적 상태가 실현된 것이다. 도통진경은 인류의 물질적 영역과 정신 영역이 고도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이상 상태인 도통진경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과 조화를 이룬 고도의 성숙된 경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통진경은 인류의 궁극적 이상향을 가리

키는 것으로 도를 통한 참다운 경지라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통진경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도통진경은 후천세계를 의미하는데, 도통진경은 인류를 포함한 만물이 자연 상태대로 최고의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존재하는 만물이 道에 의해서 서로 통하게 되는 이상사회이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不老不死)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⁴⁹⁾

IV. 社會福祉의 意義와 實踐

1. 社會福祉의 意義

사회복지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어떠한 정의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다. Friedlander와 Apte는 사회복지를 사회질서의 기능과 대중의 복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황을 강화하거나 확보하는 법률,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의 체계라 하였다.⁵⁰⁾ 사회복지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회복지란 殘餘的(residual) 社會福祉와 制度的(institutional) 社會福祉로 분류하고 있다. 잔여적 사회복지란 정상적인 공급구조인 가정이나 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

49) 典經, 예시 81절, pp. 336-337

50) W. A. Friedlander and Robert Apte,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74), p. 4

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도적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정상적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다.⁵¹⁾ 이러한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와 자유시장의 가치와, 안정·평등·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복지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욕구(needs)에 대한 서비스를 말하고, 전통적 개념은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⁵²⁾ 인간의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 욕구외에 스포츠, 연극, 음악,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도 사회복지라 한다. 사회문제는 범죄, 비행, 자살, 중독과 같은 탈선 또는 반사회적 행위, 이외에도 빈곤, 실업, 격차, 영양실조 등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가족결손, 빈민촌, 紅燈街 등의 社會解體 등을 말한다.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사회복지라 하는데,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社會政策이고, 민간(法人)이 활동하는 것을 社會事業이라 한다.⁵³⁾

사회복지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생활의 목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라 할 때에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해 가는 존재이며, 인간은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회체제내에서 생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행복을, 사회적 측면에서는 복지라 할 수 있다.⁵⁴⁾

현대 국가에서 사회복지의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給與로서 기본적 생활지원(소비재, 음식, 주택, 보건 및 다양한 상담과 보호 등)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소득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도 계속 유지되고 확대되어 생활 수준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⁵⁵⁾ 현대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를

51) Harold L. Wilensky and Charles N. Lebeaux,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 The Fress Press, 1965), p. 138

52) 金泳謨, 韓國社會福祉의 諸問題(서울 : 韓國福祉政策研究所 出版部, 1986), p. 34

53) 上揭書, p. 34

54) 金善雄,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關聯制度의 改善方案 摸索”,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問題(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 89

증진시켜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어 복지국가라 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올수록 社會權과 福祉權이 발달하여 복지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현대에는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든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 보장제도를 통해서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를 이룩하려고 한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구현하려는 역사적 발전의 산물이며 현상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종합, 또는 혼합한 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混合型 經濟體制(the mixed economic system)라고도 한다.

복지국가는 완전고용, 합리적 보상, 권력설득, 사회보장 및 문화시설 등과 같이 물질적 급여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하기도 한다.⁵⁶⁾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 사회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은 최소한 각 소득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같거나, 불가항력적인 여건하에서 절대빈곤층에 대하여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Marshall은 복지국가의 기본적 특징으로 個人主義와 集合主義를 들고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이 복지를 받을 절대적 권리가 있고, 집합주의는 국가가 전체 공동사회를 형성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⁵⁷⁾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을 제한하거나, 또는 대체하므로서 획득할 수 있는 문명생활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 생활을 위협하는 많은 개인적, 사회적 위협에 대한 보호와 생활 향상을 위한 방안이다. 어떠한 사회이든지 상호부조와 지원이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원리와 가치, 그리고 사

55) Alfred J. Kahn,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 Random House, 1973), P. 14

56) William A. Robso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7), p. 16

57) William A. Robson,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 Illusion and Realit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7), 金泳謨 譯, 福祉國家와 福祉社會 : 幻想과 現實(서울 : 經文社, 1982), 10

회복지의 수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현대 국가는 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 社會福祉의 必要性

현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달리 여러 가지의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경제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절대빈곤층이 상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지원이 없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계층이 많은 실정이다. 그리하여 전통적 개발은 비인간적이고 약자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며, 목적에 대한 수단을 절대화하고, 정신에 비해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사회적 불공정성을 증가시켜 민족적 우월성을 낳고, 구조적 결정론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⁵⁸⁾ 고 비판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로 평가하는 경제성장은 부유층의 소득증가와 빈자들의 소득저하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전통적 개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참다운 개발은 약자들의 생활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실증되고 있는 사실이다.⁵⁹⁾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확충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른바 소득재분배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현대사회의 특징에 따라 증대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는 과학기술적인 측면과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는 커다란 문화복합(culture complex)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현상으로 문화의 기술적 측면의 변화는 물론, 사회조직, 정치와 경제, 종교 등을 포함한 문화의 다른 측면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되는 복합

58) Denis Goulet, "Development for Wha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uly, 1968), p. 304

59) Simon Kuznets,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LV, No.1 (1955), p. 18

적인 문화과정이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주요한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다. 산업화는 모든 나라에서 도시화와 병행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때로는 동일한 현상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⁶⁰⁾ 산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여 도시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전통적 농경사회와는 달리 산업화된 도시사회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간의 행태적 변화를 포함한 총체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사회복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⁶¹⁾

산업화의 파급 효과는 사회구조의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는데, 산업화는 기술 수준의 향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초기에는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기술수준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상호관련적인 구조분화로 향상되어 왔다. 산업 부문의 기술수준의 향상은 새로운 직업과 직종이 생겼으며, 非農業部門 전반에 직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평등주의를 열망하지만, 사회조직은 階層的이어서 평등의 辨證法이 나타난다.⁶²⁾ 사람들은 평등한 존엄성, 행복추구, 시민권 등과 같은 권리에 대한 신념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은 계층적이어서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사회는 多集團社會로서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갖고 생활하는 이익사회로서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 또는 차별적인 정치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평등주의에 대해 요구하고 투쟁을 하게 되면 집단 갈등이 야기된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 노동은 농업노동에 비해서 작업조건이나 작업내용에 안전사고 발생률과 각종의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훨씬 높다. 산업화에 따른 복잡한 생

60) 이문웅,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 및 직업 적응에 관한 연구”,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課題(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 101

61) 金善雄, 前揭論文, pp. 38-44

62) Raymond Aron, *Progress and Disillusion*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8)

환경으로 産業災害, 각종 사고,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신경계 질환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여 폐질자, 장애인, 사망자와 유가족수가 급증하고 있다. 기계화로 인한 안전 사고 및 각종 산업재해율이 높아져 피해자가 급증하는데 대한 사회적 대책과 제도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신상의 질병과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장기 휴직과 장애에 대한 보호,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생활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이 경제발전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경제개발이 자본과 기술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先成長 後分配의 정책으로 노동자들은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제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며 기업가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였는데도, 아직까지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아직도 노동자들은 적정한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가들은 고임금으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상반된 인식으로 노사분규가 매우 심각해져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투쟁적인 극단적인 노사분규는 노동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와 피해를 주고 있다. 즉 노사관계가 서로 원한을 갖고 있는 대립적인 상극상태에 있어, 勞使合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사분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는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작업환경, 저임금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육체적·정신적 직업병이 유발되어 건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사관계의 정상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같은 근로복지의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산업화는 景氣變動으로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 호황기에는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지만, 불황기에는 임금의 삭감, 조업단축과 대량실업 등의 생존의 불안이 잠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외환 위기로 인한 經濟難으로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 그리고 家族解體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경제의 불황기에 소득 감소와 실업에 대한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생산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고도 산업화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고 있지만, 소득 분배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져 지역간, 계층간의 상대적 빈곤문제가 커지고 있다. 소득의 차이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 구조의 조정과, 형평의 원칙과 사회정의에 입각한 소득재분배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산업화는 각종 공해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도 사회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도시화는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도와는 다른 가족제도상의 기능변화를 가져 왔다. 농촌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이 농작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역할을 하여 가족구성원은 물론 친족간에도 상부상조를 하였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核家族制度에서는 가족구성원이 生産單位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성년이 되어 직장을 갖기 전까지는 消費單位로 변화되었고, 가구주의 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중이 커졌다. 그리하여 가구주의 실업이나 사망은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한 소년소녀 가장과 가장이 없는 부녀가정의 생활 안정도 사회복지의 과제이다.

도시화는 인구의 과밀현상을 초래하여 구직난으로 인한 실업문제, 주택난, 교통난, 상하수도, 기초 교육시설 등의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도시화는 토지이용제도와 지역분화에 의해서 빈민지역이 형성되어 지역공동체의 解體現象과 각종의 社會病理的 現象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화에 의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이 요구된다.

일곱째, 산업화와 도시화로 핵가족화 현상이 확대되어 가족간의 상부상조가 약화된 가운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老齡人口의 생활보장 문제가

커지고 있다. 老化는 생물학적 연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신체적·생리적 구조가 퇴화 혹은 변형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심리학에서는 노화를 정상적인 성인이 정상적인 환경조건 아래에서 신체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어나는 규칙적인 변화라고 한다.⁶³⁾ 노령화는 육체적 건강상태의 약화와 持病率의 증가와 같은 신체적 변화와 시각·청각을 비롯한 감각기능과 기억능력 등 인지능력의 감퇴 및 퇴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조심성과 경직성의 증가와 같은 성격특성의 변화, 우울증의 증가와 같은 정신건강상태의 약화 등 심리적 변화도 나타난다. 가족관계에서도 지위와 역할의 변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사회적 역할의 상실, 일정한 생활리듬의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들은 안락한 생활과 보다 만족스러운 신체적·심리적 적응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심리적 욕구와 동기체제가 생겨난다.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는 의존적 욕구로서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능력의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 심리적·정서적 의존성 등이 나타나는데,⁶⁴⁾ 사회와 가족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겠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제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장기적 기본 구상아래 종합적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여 보완하고, 사회복지의 필요성의 優先順位에 따라 종합적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하겠다.

3. 社會福祉의 實踐

사회복지는 종교단체에서 박애주의와 인간애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박애주의와 자선에 뿌리를 둔 인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본성의 일부분으로써 사회복지의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선적 행동으로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제도화되었으며

63) 尹振, “疎外集團(老人)의 社會保障에 관한 연구 : 老人의 心理·社會的 欲求를 중심으로”,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問題(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p. 166

64) 上揭論文, pp. 166-167

확산되었다.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영양결핍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선과 동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는 빈곤에 대한 혁명적인 태도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수세기 동안 대다수의 사람은 빈곤하게 태어났고 빈곤한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빈곤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여 전체적인 빈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빈곤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관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빈곤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제기되었고, 빈곤에 대한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근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정부와 민간이 개입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가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가 제도화되었다. 사회복지의 제도화는 주체(기관), 객체(대상) 및 기능으로 구성된다.⁶⁵⁾

사회복지의 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개인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자발적 활동을 하는 형태와 국가의 강제적 활동, 그리고 두 활동이 결합된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개인과 집단은 자신의 자금이나 모금으로 사회사업을 하고, 정부는 국가 재정으로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빈곤층과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들 계층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국민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에도 사회복지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機能主義者들이 강조하는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그리고 葛藤主義者들이 주장하는 사회연대와 협동에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 사회복지의 방법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상부상조와 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편적

65) 金泳謨, 前掲書, pp. 5-11

이다. 상부상조는 민간의 자발적 자조활동에 의존하고, 재분배는 정부의 강제적·제도적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갈등주의적 접근방법과 사회부적응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방법, 그리고 사회해체에 대한 통합주의적 접근방법등이 있다.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도 政策的 接近方法, 技術的 接近方法, 統合的 接近方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 파생된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사회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와 사회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적 접근은 자본주의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빈민, 노동자, 불우한 자 등을 위한 社會奉仕, 각종 社會保障, 勞使協議制와 같은 방법이 있다.

사회복지의 전문적 접근은 인간의 욕구 충족과 사회문제를 인간관계를 개선하여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개인이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욕구불만을 위기 또는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환경의 개선과 인성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문제행동인 탈선의 원인을 규명하고, 心理療法이나 社會療法에 의해 치료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사업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으로는 個別社會事業, 集團社會事業, 地域社會組織, 社會行動 등이 있다.

통합적 접근방법은 정책적 접근과 전문적 접근을 종합한 방법이다. 사회해체(가족해체, 지역사회 해체)로 인하여 생긴 사회문제(가출, 이혼, 흥등가, 빈민지역)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복지의 정책적 접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적 접근은 개인을 강조하며, 통합적 접근방법은 사회(개인과 집단)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사회복지전달체계라 한다.⁶⁶⁾ 사회복지전달체계도 정책적 접근, 전문적 접근, 그리고 통합적 접근방법이 적용된다. 사회복지전달체계도 공적전달체계와 사적전달체계, 그리고 양자를 통합한 전달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전달체계는 정책적 접근

66) 社會福祉傳達體系의 理論과 우리나라의 實態分析은 拙稿, “韓國의 社會福祉傳達體系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東國大學校 大學院, 1990) 參照

으로서 公的扶助나 공공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을 말하고, 사적전달체계는 상부상조로서 자선과 박애주의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전문적 접근을 말한다. 양자를 통합한 전달체계는 통합적 접근으로서 사회해체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⁶⁷⁾

[정부와 민간의 社會福祉 傳達 機能 領域]

국가 기능영역	정부-민간부문 공동 기능영역	민간부문의 기능영역
국가지방공동 기능 영역		
지방자치단체 기능 영역		

현대사회는 가족이나 친족, 지역사회 등 基礎集團의 역할이 약화되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이나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에는 機能集團과의 관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과거에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비전문적으로 충족되던 욕구가 전문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어, 그 기능을 공적전달체계가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전달체계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V. 大巡思想과 社會福祉

1. 大巡思想의 意義

(1) 人間尊重

대순사상에서는 후천세계는 선천세계와는 달리 모든 인간이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시대라 하였다. 선천세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

67) 上揭論文, p. 8

라, 신분과 성별 등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다. 선천세계에서는 반상관계(班常關係)에 의한 兩班 과 常人의 차별, 적서(嫡庶)의 차별, 남녀불평등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나, 후천세계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반상의 구별로 차별을 하는 것은 죽은 조상신들의 뼈를 깎는 것과 같은 보복이 따르고, 망하게 될 것이라 한다. 양반의 차별적인 잘못된 인습을 버리고 천인(賤人)을 우대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평화로운 새시대인 후천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68)

또한 대순사상은 선천세계에서는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성사될 수 있었지만, 후천세계에서는 뜻은 하늘에서 세우고 그 실현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 능력의 개발과 발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제한적인데 비해서, 후천세계에서는 인간이 능력을 극대화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한다.

선천에는 모사가 재인(在人)하고 성사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69)

대순사상에서는 우주도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늘과 땅은 해와 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요, 해와 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빈 그림자니라(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하였다.70) 천지는 해와 달이 중요하고, 해와 달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하였다. 인간은 우주의 주체로써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존귀하다는 것이다.

68) 典經, 교법 제1장 9절, p. 222

69) 典經, 교법 제3장 25절, p. 257

70) 典經, 예시 21절, p. 316

음양합덕은 인간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음양합덕은 대립적 특성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갈등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천세계는 음과 양이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바르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물론 우주 만물이 억음존양(抑陰尊陽)으로 상극관계에 있고, 극심한 불균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한다.

抑陰尊陽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음과 양을 바로 잡아 正陰正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선천세계에서는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간 사회가 상호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경쟁하여 대립과 투쟁의 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사회는 상호간에 원한이 쌓여 진멸의 위기에 있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진멸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상인데, 인류의 구원은 음양합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음과 양이 각각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존중하고,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바르게 상합하도록 하는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사회가 바른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해야만 한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하고 안정된 행복한 생활을 해야만이 인간사회에 쌓인 원한이 해소될 수 있으며, 진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神人調化도 인간을 신과 동일한 존재, 또는 신 보다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상으로 인간 존중을 추구하고 있다. 신인조화는 전통적인 신인관계(神人關係)에 있어서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 왔다. 기존의 신관(神觀)은 신은 인간을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여, 인간은 신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있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정음정양(正陰正陽)의 음양합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신이 오히려 인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신도 인간이 없이는 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신도 인간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원상생도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사회적 갈등

과 불안의 원인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원한 방지와 해원 방안으로 인존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해원은 기존에 생긴 원한을 해소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원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생긴 원한을 완전히 풀어 주기 위해서는 인존이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상생은 자신 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타주의를 의미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 보다는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기주의적인 행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속성을 상극으로 보고 있으며, 상극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인류가 파멸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는 상극의 원리를 상생의 원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인간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평등한 모든 차별과 억압을 제거하고 상생의 원리가 지배해야만 한다.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한이 상존하게 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는 불만과 불안이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인존윤리(人尊倫理)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순사상의 완성을 의미하는 도통진경은 인간 존중이 완전히 실현된 이상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도통은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써,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인정한 것이다. 진경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이 생존 욕구를 최대로 충족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한다. 대순사상에서 진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류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 인류를 구원하려는 것으로 인간 존중을 최대로 실현하려는 사상이다.

(2) 人格完成

대순사상의 종지는 인격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이 존중받으려면 존중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상합하는 음양합덕은 인간이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격을 쌓아야만 가능하다. 인간사회는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가고 있어, 상호 협력적이고 조화를 이루는 음양합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사회에서 음양합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을 도야할 때만이 가능하다.

신인조화가 추구하는 것도 인격완성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이 음양합덕을 이루어 공존하면서 협력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는 인격을 도야하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死後)에 신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신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영혼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도를 닦은 자만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⁷¹⁾ 도를 닦은 자는 죽어도 정혼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에 오를 수 있지만, 도를 닦지 않은 자의 정혼은 흩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신인조화사상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노력과 마음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이 덕을 쌓고 마음을 바로 가질 때 신이 도와준다고 한다. 인간의 행복은 신명이 주는 것이기보다는 인간이 마음을 정화하는 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인격을 도야하여 덕을 쌓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때 신명들이 도와주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되면 화를 입을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⁷²⁾

해원상생이 추구하는 것도 인격완성이다. 해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갖지 않게 하며, 원한이 생긴 경우에는 먼저 원한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상생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남이 먼저 잘 되도록 도와

71) 典經, 교법 제2장 22절, p. 237

72) 典經, 교법 제1장 29절, p. 226

줄 것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척을 짓거나 원한을 사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 주라고 한다. 남에게 척을 짓지 않거나 원한을 사지 않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인격이고, 남을 도와 주는 것은 고차원의 인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원상생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도리이며, 고도의 인격을 쌓으며 생활에 직접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윤리라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의 실천은 윤리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 원리를 생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도를 닦고 덕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지식을 알기만 해서는 효용이 없고 실행하여야만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일을 알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만 못하리라……”⁷³⁾하여,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옳은 말을 듣고 실행치 않는 것은 바위에 물 주기와 같으니라”⁷⁴⁾하여, 옳은 일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 즉 해원상생이 생활 윤리로서 중요하다고 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무의미하고 실행하는 생활을 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도통진경은 인간으로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인격을 갖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도통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인 人道를 완전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한다고 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 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⁷⁵⁾ 하여 마음을 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통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人道를 완성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참된 일만 해야만 한다고 한다. 즉 도통에 이른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무자기(無自欺)를 실천하는 人道는 말할 것도 없고, 中庸에서 말하는 天道인 誠에 이른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되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되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73) 典經, 교법 제3장 28절, p. 255

74) 典經, 교법 제1장 23절, p. 225

75) 典經, 교법 제1장 21절, p. 225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意不誠)⁷⁶⁾하여 마음이 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완전한 調和

대순사상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조화이다. 대순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경쟁적이어서 조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욕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충돌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만족을 모르는 무한한 욕구는 갈등을 유발하여 화합과 협력 보다는 투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왔다.

대순사상은 인간과 인간의 조화,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 인간과 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다. 대순사상은 天人合一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을 하늘과 동일한 존재로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났고 자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신인조화는 신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인간이 죽으면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신인조화는 신과 인간의 존재방식이 다르고 지향하는 측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원상생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해서 실천해야 할 윤리이다. 선천세계는 상극의 원리에 의해 원한이 쌓일 수 밖에 없는데, 원한을 풀어 주지 않으면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극한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선천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명계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회복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해원상생은 상극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생관계로 변화시킬 때 완전한

76) 대순진리회, 前揭書, p. 76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주와 인간사회는 음양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음양의 변화에 의해 우주 만물이 변화되므로서 상극관계에 있는 음양이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상생은 만물이 존재하는 기본 원리로서, 우주의 만물은 상생이 아니면 온전히 존재할 수 없다. 천지가 조화되어야 인간사회와 만물은 존재할 수 있고, 인간사회는 상호 협력적인 상생이 이루어져야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도통진경은 우주 만물이 생존하는데 天地人, 삼계가 최상의 조건이 된 것으로 인간과 자연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도통진경은 인간과 천지가 완성된 것으로 天地人 삼계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4) 價値創造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대립하는 상대성 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창조되고 성장·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상반과 상호의존하는 응합의 반복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발전하며, 우주는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음양의 대립과 응합의 반복에 의해서 생명체가 창조되고 변화하는 것은 음과 양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창출하는 가치창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음양합덕에 의해 창출된 가치는 음과 양이 본유한 가치 보다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데에서는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는 상태이고, 결합하였을 때 비로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각각의 존재의의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음과 양이 각기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이 결합하여야 기존의 음과 양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특성과 능력을 갖게 된다. 음과 양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보다는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음양합덕은 참다운 의미가 있다.

가치창조는 생명체의 창조만이 아니라, 인간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류 문명의 발생과 문화의 발전은 음양합덕과 같이 기존의 존재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전은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창조성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인간사회의 발전도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신인조화도 기존에 존재하는 것 보다는 다른 의미있는 것을 창출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신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협력관계를 갖고 새로운 의미있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 신인조화이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덕을 상대로부터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고, 완전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상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와 인간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과 인간이 상통하고 화합하여야만이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신과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원상생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사상이다. 선천세계에 쌓인 원한을 해소하고 상생을 실현하는 것은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이행하는 데에는 해원상생에 의해 원한이 해소되고, 인간사회가 바르게 안정되어야 한다.

도통진경은 인간이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변신하며, 인간과 만물이 완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이상을 제시해 주는 사상이다. 인간이 최고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도통은, 인간이 무엇이나 창조할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존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세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이상적 환경을 만든다는 진경은 새로운 가치가 창조되고 완성되는 이상세계를 의미한다.

(5) 理想世界의 實現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상을 추구하여 현재의 상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여 왔으며, 향상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간이 향상된 생활을 하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라 할 수 있다. 문명의 발달과 인간사회의 발전은 욕구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노력의 소산이다. 인간이 보다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가져 왔다. 그러나 인

류가 발달시켜 온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은 오래전부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사회를 추구하여 왔다.

이상세계는 현재의 상태와는 다른 현실 초월적 상태로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가능성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⁷⁷⁾ 이상사회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인간의 소망을 표출한, 그 자체로도 큰 의의가 있다. 현실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에서도 이상세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며,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상세계는 대부분 종교적 내세상태(來世狀態)로 상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순사상에서도 이제까지의 세계를 선천세계라 하고, 앞으로 전개될 사회를 후천세계라 하는데, 후천세계는 인류의 이상사회로서 선경이라고도 한다. 선경은 다른 종교의 내세관(來世觀)인 극락이나 천당과 같은 이상세계를 의미하지만,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후천세계는 극락이나 천당과는 다른 독특한 내세관이다. 극락이나 천당은 인간이 사후세계(死後世界)에서 영생을 희구한 내세관이지만, 선경은 현실 세계를 말한다. 선경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사회가 이상세계로 변화된 상태로서 지상선경이라고도 한다.

대순사상은 최고의 이상 상태인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도통진경을 이루어 이상사회인 선경이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수도를 하고 있다. 수도를 통해서 천도, 지도, 신도, 인도를 실천하면 상극지리(相剋地理)가 상생지리(相生地理)로 개조되어 우주의 질서가 바르게 잡히고, 인간 세계가 모순과 갈등, 대립과 투쟁이 종식되고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2. 大巡思想과 社會福祉

사회복지는 사회의 빈민층과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려는 활동이다. 사회복지

77) Karl Mannheim,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 : 청아출판사, 1991), pp. 263-277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려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데 있다.

대순사상의 종지와 의의는 인류가 최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 선경을 건설하려는 사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이념이 될 수 있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켜야할 규범이라 생각한다. 대순사상의 종지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과 이러한 사상에 내포된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가치창조, 이상세계의 실현 등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며, 실천해야할 당위적 가치이다. 대순사상의 종지와 사상적 의의와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순사상의 인간존중은 현대사회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 이념이며, 사회복지에서도 최고이념이다. 서구에서 사회복지의 국가의 재정능력의 증대와, 산업혁명, 시민혁명에 의한 인권 존중과 시민의식이 형성되면서 발전하였다. 사회복지는 인권의 존중과 자유, 평등의 이념이 형성되면서 더불어 제도화되고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현대국가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福祉權을 명시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인간은 우주의 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사회적 위치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외계층의 인권과 자유를 확대하여,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역사와 관념에 따라 국가마다 사회복지 수준과 방법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복지의 개인적 이념은 인격완성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인 빈곤층과 자활능력이 없는 계층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자들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서 要救助者들이 안

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바른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사회복지방법이었던 자선과 빈민구제사업 등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개인은 할 수 없다. 개인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인격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수혜자의 인격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인격의 성숙을 도와주기도 한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지켜야할 규범의 하나는 수혜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인격을 제공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는 수혜자의 욕구와 필요한 내용을 인격을 존중하여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수혜자의 욕구에 따라 인격을 존중하면서 지원되어야 사회복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셋째, 완전한 조화는 사회복지의 목표인 동시에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빈곤층과 부유층의 격차를 완화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성질과 성향이 다른 음과 양이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음양합덕의 실현을 의미한다.

음양합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야만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에도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의 정부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의 활동만으로도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사회복지의 향상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불우 아동, 노인, 부녀자, 심신장애자, 빈곤층 등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음양합덕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要救助者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으며, 중상류층은 우세한 입장에 있어 抑陰尊陽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통해서 要救助者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능력을 향상하여 正陰正陽의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이 경제적·정신적 능력의 향상은 부유층과의 조

화를 이루고, 이러한 조화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음양합덕의 사회복지적 의미는 陰的인 빈자나 소외계층과, 陽的인 부유한 자들이 조화스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덕의 사회복지적 의미는 중산층 확대와 상관관계가 있다. 빈곤층과 부유층의 중간인 중산층이 많아질 수록 사회복지는 확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양합덕은 대립적 관계에 있는 빈곤층과 부유층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부유층이 도와 주어서 빈곤층이 중산층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대순사상은 노동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준수해야 할 사상이다. 노사관계는 양측의 의식과 관계에 따라서 대립적일 수도 있고, 상생적일 수도 있다. 음양합덕의 조화정신과 상호존중의 의식을 갖게 되면, 노사관계는 상생적 관계가 될 수 있다. 노동자는 기업이 존재함으로써 취업을 하였고, 기업이 발전해야 자기에게 분배되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가는 노동자의 생산활동에 의해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를 존중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기업가가 상대를 존중하는 음양합덕적 사고에 의한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하다. 노사 양측이 그 동안의 쌓인 원한을 풀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적 관계를 갖게 될 때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발전하는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가치창조는 사회복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음양합덕과 신인조화는 음과 양, 신과 인간이 本有한 가치보다 더 의미있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의 음양합덕이나 신인조화의 같은 가치창조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자와 수혜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음과 양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협력적 관계를 가져 의미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에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생활 향상과 자립의지의 형성과 자활,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 등이다.

여섯째, 해원상생은 사회복지의 실천과 관련이 있다. 원한을 해소하고, 남이 잘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해원상생은 사회복지의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要救護者들은 원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층, 심신장애자, 자활능력이 없는 要救護者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원한은 소망하는 바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현실과 자신에 대해 원망하는 감정, 자신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에 대한 적대감과 보복심을 갖는 것 등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要救護者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자립적인 생활능력이 없는데 대해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는 원한을 갖고 있는 계층들에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상생 개념은 사회복지의 始原이 된 자선과 박애주의 보다 이타주의적인 人間愛이다. 대순사상의 상생은 자신 보다는 남을 먼저 이해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선과 박애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정부와 민간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상생적 사회복지이어야 한다.

해원상생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식과 태도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要救護者들의 심리 상태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원한을 해소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상생을 실현할 때 사회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상세계의 실현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이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인 선경은 인간 존중이 완전히 실현된 세계이며, 인간과 만물이 생존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상사회를 실현하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진리회는 救護慈善, 社會福祉, 教育事業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구호자선사업은 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 불우이웃돕기와

이재민, 구호, 신체장애자 돕기 등의 구제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무료 예식장 운영, 새마을 사업에의 적극적 참여, 부인회와 청년회의 체계적 운영, 화재 방지 활동, 지역사회 개발사업, 방위성금, 농촌일손돕기, 미아보호운동, 경로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생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복지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사업으로는 장학사업과 육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VI. 結 論

대순사상은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도된 종교사상이다. 대순사상은 儒佛仙에 의해서도 인류가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천지의 완성을 위해 창도된 사상이다. 대순사상은 상극 원리에 의해 인류가 멸망할 지 모르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상 선경을 건설하여 인류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宗教思想이다.

대순사상은 창도주의 계시와 예측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류가 진멸할 수 있는 환경악화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윤리관의 혼란으로 인한 인명 경시와 인류의 파괴 등은 상극의 원리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다. 상극 원리에 의해 인류가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진단과, 이의 극복을 위한 방향과 방안 제시는 적합성이 커지고 있다.

대순사상에서 예시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후천시대에는 신분과 성별 등에 의해서 나타난 각종 차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과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될 것이며, 버림을 받은 땅도 기운을 얻게 될 것이라 하였다. 한편 인류가 살고 있는 지역의 地氣가 다르기 때문에 사상이 달라져 다른 생각을 하여 반목 투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서양의 교류에 의해 다양한 주의와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서양의 물질문명 발달이 정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天道와 人事의 상도가 문란해졌다고 한다. 서양의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인간들이 교만해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죄악이 만연되고 神道の 권위가 떨어졌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 사상과 문명이 환경을 파괴하여 인류가 진멸할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의 종지는 우주와 인간 사회의 구성과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음양합덕, 신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신인조화, 선천세계에 쌓인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생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해원상생, 인류가 꿈꾸워 온 이상인 도통진경이라는 지상선경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의 종지는 철학적이며, 종교사상으로서도 체계적이면서 심오하다.

대순사상이 지니는 사상적 의의는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가치창조, 이상세계의 실현 등으로 정리하였다. 대순사상은 인간을 우주의 중심적 존재로 인정하여 인간존중을 실현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신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신 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며, 오히려 신이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한다.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성품을 갖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조화, 신과 인간의 조화 등을 추구한다. 대순사상의 종지는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도 완전한 조화를 형성하고 유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순사상은 天人合一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으로서 완전한 조화를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야 한다고 한다.

대순사상은 음과 양, 신과 인간이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 협력하여 인류가 생존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결합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보다 더 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대순사상의 궁극적 목표는 이상사회인 선경을 건설하는 것이다. 인류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아 왔다.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종교적 차원의 의미만

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성숙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인간을 신과 같이 존중해야 하며, 스스로 높은 수준의 인격완성을 추구해야 하며, 우주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며 인류의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은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회복지란 일차적으로는 사회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빈민층과 소외계층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활동이다.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경제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활동이다.

대순사상의 종지와 대순사상의 의의인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가치창조, 이상세계의 추구는 사회복지에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존중해야 할 가치이다. 대순사상은 인간 생활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규범이 되고 실행해야 할 가치로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이념이 되고 실제의 과정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이 지향하는 이상세계인 지상선경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고, 인간존중, 인격완성, 완전한 조화, 가치창조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순사상은 사회복지학의 韓國化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학문은 서구의 이론과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소개하고 적용하는 실정이다. 우리와는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진 외국에서 개발한 이론을 도입하여 非實際的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현실과 문화적 배경, 사회상황 등에 기초한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보다는, 서구의 이론과 사회사업방법을 도입하여 소개하고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순사상은 사회복지의 이론 형성, 사회정책의 결정과 집행, 사회사업의 전문화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과 갈등, 사회문제 들은 상극의

원리에 의해 파생된 것들이다. 사회복지의 상극으로 인하여 생기는 원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상생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원상생은 사회복지의 실천 규범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음과 양이 상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음양합덕은 사회복지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자와 수혜자가 있으며, 사회복지의 모든 구성원들이 상생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음양합덕의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논문은 대순사상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에 관한 序說的 연구이다. 앞으로 대순사상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된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典經

강돈구, “신종교연구 서설”, 종교학연구, 제6집(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1987)

金璟東, 現代의 社會學(서울 : 博英社, 1978)

金善雄, “福祉社會 建設을 위한 關聯制度的 改善方案 摸索”,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問題(서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金樹澈, 道德과 倫理(서울 : 敎文社, 1987)

金泳謨, 韓國社會福祉의 諸問題(서울 : 韓國福祉政策研究所 出版部, 1986)

金鍾瑞, 現代 신종교의 이해(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盧吉明, “神과 人間의 원한을 抹消한다”, 趙明基외 33인, 韓國思想의 深層 研究(서울 : 宇石, 199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서울 : 大巡眞理會敎務部, 1969)

朴昇植, “韓國의 社會福祉傳達體系에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東國大學 校 大學院, 1990)

朴昇植, “陰陽合德의 意義와 思想的 價値”, 大巡思想論叢, 제2집, (大巡思想學術院, 1997)

朴昇植, “神人調化의 思想的 意義“, 大巡思想論叢, 제3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朴昇植, “道通眞境의 宗教的 의의“ 大巡思想論叢, 제5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이문웅, “공업화과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활 및 직업 적응에 관한 연구”,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課題(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李正典, “所得分配의 측면에서 본 環境問題“, 環境論叢, 第23卷(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1988)

- 尹 振, “疎外集團(老人)의 社會保障에 관한 연구 : 老人의 心理·社會的 欲求를 중심으로”, 福祉社會 具現의 當面問題(서울 :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6)
- 田英培, 宗教·思想教育(대구 : 보문출판사, 1990)
- 鄭大珍, “大巡思想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 (大巡思想學術 院, 1996)
- 鄭大珍, “陰陽合德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2집(大巡思想學術院, 1997)
- 鄭大珍, “解冤相生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4집(大巡思想學術院, 1998)
- 車相轅 譯解, 大學中庸(서울: 新韓出版社, 1982)
- Aron, Raymond, *Progress and Disillusion*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8)
- Friedlander, W.A.,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74)
- Goulet, Denis, “Development for What?”,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uly, 1968)
- Kahn, Alfred J., *Social Policy and Social Services* (New York : Random House, 1973)
-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XLV, No.1 (1955).
- Mannheim, Karl, *Ideologie und Utopie* (Verlag G. Schulte-Bulmke Frankfurt /Main, 1952),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서울:청아출판사, 1991)
- Robson, William A.,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7)
- Robson, William A.,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 Illusion and Reality* (London : George Allen & Unwin, 1977), 金泳謨 譯, 福祉國家와 福祉社會 : 幻想과 現實(서울 : 經文社, 1982)
- Scott, Marvin, B. “The Social Source of Alienation”, in Irving L. Horwitz (ed.), *The New Sociolog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Smart, Ninian, *Worldviews : Crosscultural Explorations of Human Beliefs*, 강
돈구 역, 현대종교학(서울 : 청년사, 1986)

Storig, Hans Joachim, *Kleine Weltgeschichte der Philosophie : in zwei
Banden* (Fischer Taschenbuch Verlag), 河在昌 譯, 세계철학사 : 상
권(서울 : 培材書館, 1992)

Wilensky, Harold L., and Charles N. Lebeaux,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ew York : The Fress Press, 1965)